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2021. 5. 2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전략	2
III. 특화단지별 여건분석 및 지원방안	3
1. 경기(반도체)	4
2. 전북(탄소소재)	6
3. 충북(이차전지)	8
4. 충남(디스플레이)	10
5. 경남(정밀기계)	12
IV. 소부장 특화단지 공통 지원방안	14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소부장 분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및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중요성 부각

소부장 제품은 통상 중간재로서 개발·생산에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기업간 안정적·장기적 거래가 중요하고, 개발·생산·판매간 연계가 필수적

- 소부장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정보·시설을 공유, 산-학-연 혁신 체계를 활성화하여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자립 클러스터 구축 추진

2 추진 경과

- ① **(계획확정, '20.5.13)** 제4차 경쟁력위에서 특화단지 추진전략,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 기본 방향 >

- ◇ (분야) 강점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주력산업 및 Big3 등 新산업
- ◇ (특징) 앵커 수요대기업을 연계, 밸류체인 완결성과 협력→집적화구조
- ◇ (혜택) 공동 인프라, 규제특례, 협력모델 R&D 등 인센티브 집중

- ② **(지자체 공모, '20.6.5~19)** 10개 광역지자체, 12개 단지 신청
- ③ **(평가 및 컨설팅, '20.6.23~'21.1.8)**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와 단지별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5개 단지 추천

△경기용인(반도체), △경남창원(정밀기계), △전북전주(탄소소재),
△충남천안(디스플레이), △충북청주(이차전지)

- ④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21.2.23)** 제6차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21.1.26)을 거쳐 산업부장관 5개 특화단지 지정

Ⅱ.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전략

1 “밸류체인 완결형 글로벌 클러스터” 완성을 추구

-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빈틈없고 강력한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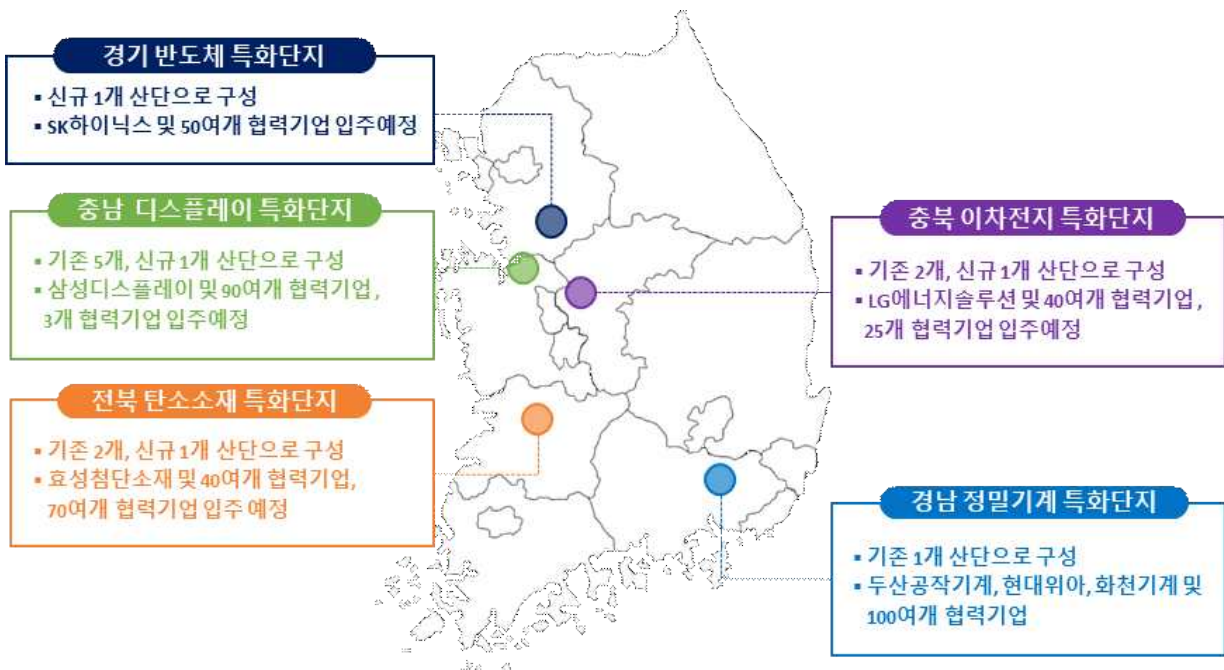
2 단지내 자발적 “수요-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

- 공급기업은 과감히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수요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정착

3 특화단지별 차질없는 본격 가동 지원

-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단지는 행정적·재정적 총력 지원

< 참고. 5개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 >



Ⅲ. 특화단지별 여건분석 및 지원방안

<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방안(요약) >

① 수요-공급기업간 대규모 협력 R&D 지원

- 특화단지별 밸류체인상 취약부분 또는 다양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추진

* 다수의 공급기업과 앵커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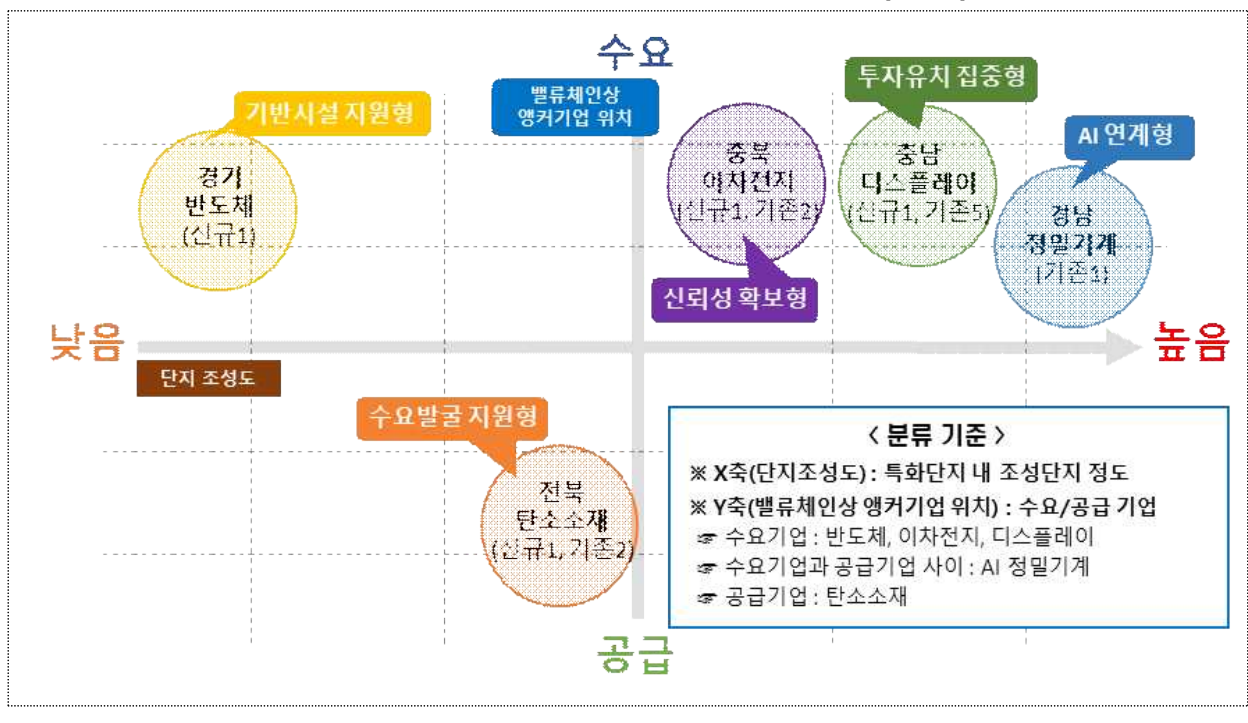
② 연대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앵커기업의 요구 스펙과 공급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단지별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③ 산업별, 단지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원 추진

- 산단 기반시설 지원(용인 클러스터), 인력양성 지원(비수도권), 신규 수요발굴 지원(탄소섬유) 등 단지별 여건에 맞춘 지원 검토

< 특화단지별 여건분석 및 맞춤형 전략(요약) >



1 경기 (반도체)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집중지원

1. 현황 분석

□ **(산업현황)** 우리경제의 **1등 주력산업**으로, 최근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

-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버팀목
- 다만, 미·중·EU 등 주요국의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추진에 대응해 우리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 필요

*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발표('21.5.13일)

□ **(단지현황)** 1개 일반산업단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 앵커기업인 SK하이닉스가 총 120조원을 투자하여 50개 이상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중
- 산단계획 승인 완료('21.3월) 후, 토지매입 및 보상 협의 관련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착공을 거쳐 '25년 준공 예정



<반도체(용인) 특화단지 구성 및 기능>

- ① Fab Zone : 4개의 Fab 구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Capa 확보
- ② 상생협력 Zone : 앵커-협력 기업 입주공간
- ③ 스마트혁신 Zone : 핵심품목 국산화를 위한 Test-bed를 포함한 상생센터
- ④ Support Zone : 상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 산단인프라 및 주거단지

□ **(밸류체인 분석)** 입주희망기업 대상 분석시 기본적인 **밸류체인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 (단, 입주기업 미확정으로 밸류체인 분석 한계)

- '21.하반기 "입주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약 50여개 선정 예정
- 단지 조성 후, SK하이닉스는 상생센터 구축 및 공동 R&D, 인재 육성 등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약 1.22조원 규모 지원

2. 맞춤형 지원방안

① “K-반도체 전략”에 따른 기반시설 선제 구축 지원

* (기대효과) '25년 차질없는 준공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

① (용수 확보) 반도체 Fab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수물량 선제 반영('21.下)

- 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 신속처리*로 용수 확보 적극 지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해 하천점용허가 최대한 신속처리

② (전력 인프라)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산단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최대 50%(국비 25%, 한전 25%) 지원 추진

- 기존 법적 근거 활용 및 필요시 제·개정을 통해 추진

③ (폐수처리)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R&D 등 간접지원 추진

② 소부장 기업 성장도약을 위한 2단계 테스트베드 구축

○ (주요내용) 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25년)전까지 차세대 융합기술원에 요소기술 검증기반 마련 추진

② '25년 용인 클러스터 준공시기에 맞춰 노광기, CVD 등 양산 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예타 추진)

③ 입주기업 선정시 밸류체인 분석 지원 (특화단지 추진단)

○ (주요내용) “경기 특화단지 추진단”(주관기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통해 입주기업 선정시 밸류체인 분석 지원 →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④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R&D 지원 (협력모델화 추진)

○ (주요내용) 입주기업 선정 완료후, 단지내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 협력분야 등에 대해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R&D 지원 추진

< 경기 반도체 특화단지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예시) >

- (소재) 고순도 합성쿼츠 및 실리콘 전구체, 고해상 PR 소재 개발 등
- (장비) 금속재배선 일괄공정 장비시스템 개발 등
- (부품) 노광패터닝 광학계/제어계 핵심부품 개발 등

※ 입주기업 선정 완료후, 협력모델화를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 확정 추진

② 전북 (탄소소재) - 신규 수요창출 집중 지원

□ (산업현황) 탄소소재는 '30년까지 1,000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탄소소재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역사는 짧으나, 빠르게 성장중

* (탄소소재 시장) ('19년) 52조원 → ('30년) 176조원 (CAGR=11.8%)

* (응용부품 시장) ('19년) 310조원 → ('30년) 1,055조원 (CAGR=10.9%)

- 기술력은 日이 가장 앞서며 美·獨 우수. 최근 중국 또한 대규모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소재·장비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 중

- 우리나라도 '16년 탄소법 제정 등 집중 지원중으로 범용소재 분야에 선진기술력 확보, 단, 수요처 확보는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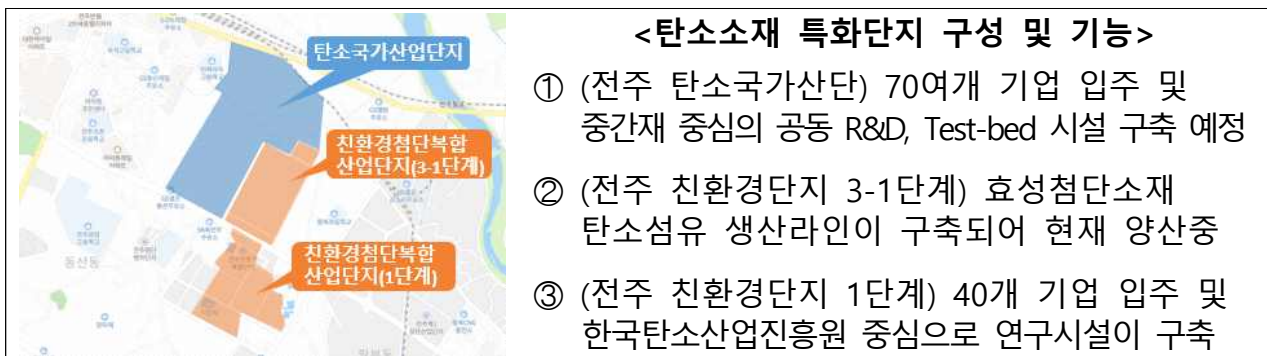
* 효성첨단소재, 세계 3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양산 성공

□ (단지현황) 2개 기존산업단 + 1개 신규 산업단으로 구성

* (기존)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 1단계('08 준공), 3-1단계('11 준공)

(신규) 탄소국가산업단지 ('21 착공, 24년 준공 예정)

- 효성첨단소재(앵커기업)과 40여개 협력기업 입주중(70여개 추가 입주 예정)이며, 단지내 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지정('21.2월)



□ (밸류체인 분석) 탄소산업 특성상 앵커기업(대기업)이 소재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지내 중간재기업 부족, 수요기업 영세

- 타산업과 달리 앵커기업이 소재(탄소섬유) 생산 → 중간재 기업 가공 → 최종 수요 중소·중견 기업에 납품하는 구조

- 탄소섬유를 최종 수요기업 사용 용도(예. 수소차의 수소탱크)에 맞춘 물성(탄성, 강도 등)을 구현하는 “중간재” 생산기업 부족

- 또한, 단지내 25여개 최종 수요기업이 있으나, 대부분 영세

2. 맞춤형 지원방안

① 소재-중간재·부품-수요 기업간 공동 R&D 지원 (협력모델화 추진)

- (주요내용) 효성첨단소재의 생산규모 확대*에 맞춰 다양한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중간재 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현재) 4천톤/년→ (2028년) 2만4천톤/년

- 향후 신규 시장 창출 역량이 높은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형 기술개발 발굴·지원 추진

*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발전전략(21.2월) 5대 핵심 수요산업 분야 :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중점 추진 과제 (예시)	① 수소탱크용 차세대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및 실증	② 차세대 이동체(PAV*)용 소재, 부품 개발 및 성능평가	③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량용 고강도 경량 부품 개발 및 실증
---------------	------------------------------	-----------------------------------	-------------------------------------

* PAV(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 항공 이동체 산업부 주관 PAV 얼라이언스 발족(21.2월)

② 밸류체인 연계 공동 실증기반 구축

- (주요내용) ① '탄소소재-부품-완제품'간 밸류체인 협력형 상품화 지원 (매뉴팩처링 인큐베이팅 허브) ② 수요산업 연계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③ 탄소산업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① 소재부터 시제품까지 토탈 엔지니어링 지원 컨설팅, ②기 구축 인프라 연계 가상현실(Digital Twin)을 활용한 실증지원 추진, ③기업지원 및 탄소 산단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추진 검토

④ 탄소소재 전문인력양성 지원

- (주요내용) 특화단지 앵커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인력,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애로기술 해소 중심 맞춤형 재직자 교육 실시

* 탄소산업진흥원 등 37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기존 재직자교육사업("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내 특화단지 연계 프로그램 마련

구분	기존 재직자 교육	특화단지 연계 재직자 교육
교육대상	산업체 재직자	특화단지 내 협력기업 재직자
교육기관	대학 및 협·단체	앵커기업(효성),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등 산학연 연계 교육

3 충청 (이차전지) - 이차전지 신뢰성·안정성 확보 지원

1. 현황 분석

□ (산업현황)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시장 급성장 중

* 美, EU, 中 등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친환경차 배터리, ESS 등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6년 255억불(93.4GWh)→ '20년 461억불(287.6GWh)로 5년간 2배 수준 증가, 향후 10년 간 8배 증가* 전망

* '30년 3,517억불(3,392.2GWh) 전망 (출처 : SNE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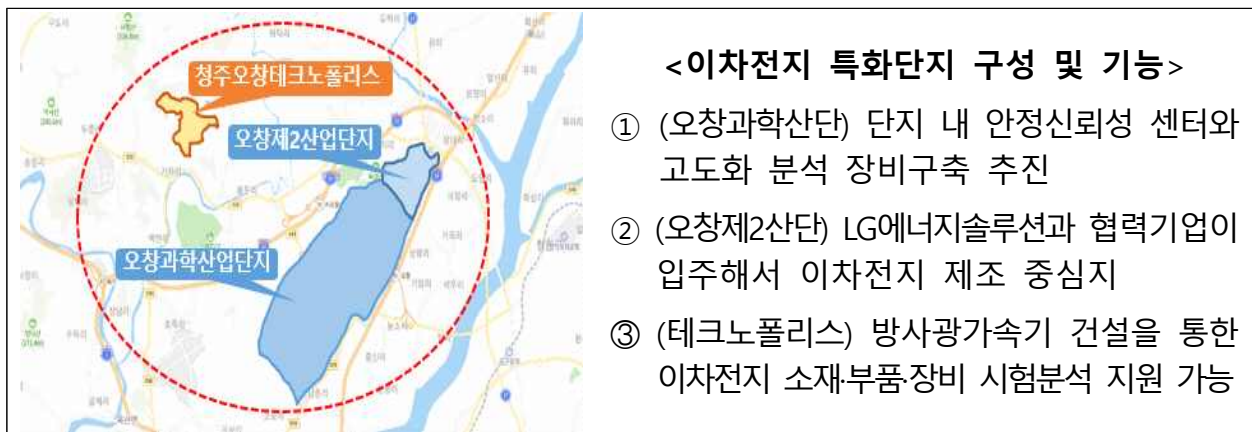
- 단, 중대형 이차전지 관련 안정성 제고는 이차전지 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

□ (단지현황) 2개 기존산단 + 1개 신규 산단으로 구성

*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02 준공), 오창제2산업단지('13 준공)

(신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20 착공, '23 준공 예정)

- LG에너지솔루션(앵커기업)과 40여개 협력기업 입주중이며, 25개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추가 입주 예정



□ (밸류체인 분석) 4대 핵심품목*중 음극재를 제외한 3개 품목과 모듈·팩 기업 다수 포진, 다만, 음극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

*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 3대 핵심소재기업, 배터리 셀·팩 제조기업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상 필요기업이 단지 내 다수 소재, 경쟁력도 높은 수준

- 다만, 음극소재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경쟁력이 낮은 편

2. 맞춤형 지원방안

① 이차전지의 안정·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증기반 확충

- (주요내용)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21.4월 충북 선정) 및 고도분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안정·신뢰성 확보와 핵심소재 개발 지원 추진
- * (시험평가센터) 셀제조라인 구축을 통한 이차전지 성능 및 안정성 평가 지원
(고도분석**테스트베드**) 미세구조 분석 등을 위한 SEM, TEM 등 고도분석장비 지원

②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지원 (협력모델화 추진)

- (주요내용) 다양한 모빌리티, 선박 등 중대형 배터리 신시장 창출 및 선도를 위한 소재·부품-이차전지-응용산업 연계형 R&D 추진

4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협력)	중대형전지용 고신뢰성 전해액 첨가제 양산화기술 개발 중대형전지용 친환경 제조기반 알루미늄 파우치 개발 등
↓	
배터리셀 (앵커)	(소재) 성능평가 및 피드백 (응용) 개발사 니즈를 반영한 셀 스펙 최적화 지원
↓	
배터리팩 (협력)	고안전 확장형 배터리 모듈 / 수냉식 고출력 배터리 시스템

③ 융·복합형 이차전지 특화 전문인력양성

- * 이차전지산업은 관련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전문 특화인력 확보 시급
- (주요내용) ① 앵커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인력,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② 이차전지 제조의 전과정에 대한 실습 위주의 전문인력 양성
- ③ 기업애로기술 해소 중심의 수요맞춤형 교육 실시
- ※ 기존 재직자교육사업("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내 특화단지 연계 프로그램 마련

4 충남 (디스플레이) -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 집중 지원

1. 현황 분석

□ (산업현황) 비대면 IT 제품 수요증가로 코로나 충격 회복추세이나, 경쟁국의 OLED 추격은 우리에게 큰 위협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IT기기(모바일, 노트북 등) 수요가 증가하며, '21년 1분기 OLED 수출액은 22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37% 성장
-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의 저가공세 대응 및 고부가가치화 창출을 위하여 LCD에서 OLED로의 사업재편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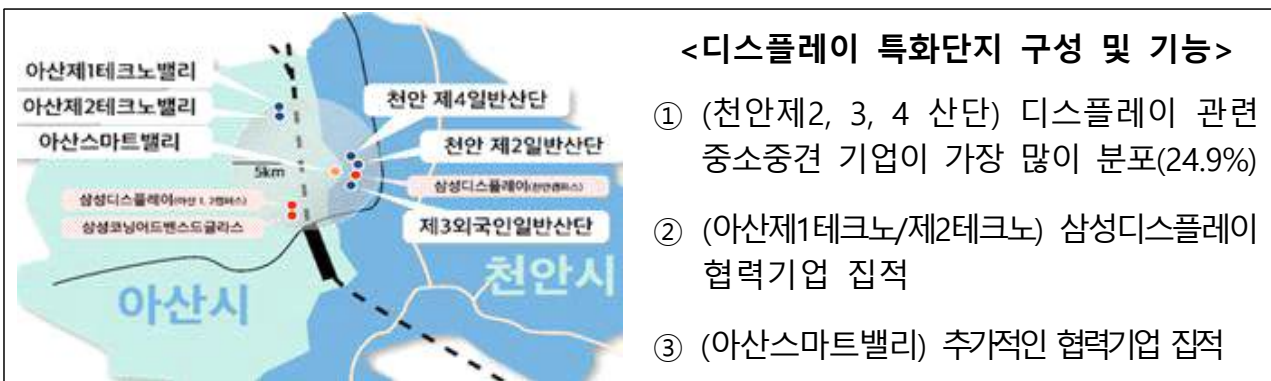
* 산업부 주관 대규모 예타사업 진행중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구축사업”, '19~'25년, 총사업비 5,281억원)

□ (단지현황) 5개 기존산단 + 1개 신규 산단으로 구성

* (기존) 천안 제2산단('90), 천안 제3외국인산단('93), 천안 제4산단('01), 아산 제1테크노('06), 아산 제2테크노('10), (신규) 스마트밸리('19 착공, '21 준공 예정)

- 삼성디스플레이(앵커기업)과 약 90개 협력기업 입주중, '21년내 준공 예정인 스마트밸리는 현재 입주계약 70% 수준



□ (밸류체인 분석) 패널 제조 관련 장비기업들 다수 포진, 단, 핵심 소재부품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공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기업들이 단지 내 다수 분포되어 있는 반면, 소재 및 부품기업은 주로 단지의 소재
- 대면적 고화소밀도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기능성 필름, 본딩 소재 등 대한 기술 및 밸류체인 확보 필요

2. 맞춤형 지원방안

① 아산스마트밸리 “첨단투자지구” 지정 검토

- (주요내용) 아산스마트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첨단투자 여부 확인을 통해 산단중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검토
 - * 관련법 개정안(산집법) 본회의 통과(5월)
- 기존 특화단지상 인센티브 外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연계 등 지원 가능
 - * 용적률·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

②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양성 지원

- (주요내용)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기초 역량 강화 및 특화 분야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연계 실습·심화 훈련 과정 지원

구분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교육대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기관	융합혁신지원단, 디스플레이 협회 등
교육내용 (안)	① OLED 제조 이론 및 실습 과정(100명), ② 현장 맞춤형 SW 교육 과정(100명), ③ 최신 기술 교육 과정 (200명)

③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 (주요내용) 패널 제조 관련 기업 대비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절대 부족으로 소재·부품 시험생산 및 분석·평가 연계형 기반 필요
 - 시험생산-분석-신뢰성평가 분야별 장비 구축 및 소재은행 DB발굴 추진

④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R&D 지원 (협력모델화 추진)

- (주요내용) QD 디스플레이를 위한 핵심 소재, 부품 기술과 In-Cell 방식의 OPD(organic photo diode)를 위한 소재, 소자 기술, LF(light field)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정밀 장비 기술 등

5 경남 (정밀기계) - AI 접목을 통한 산업 디지털화 중점 지원

1. 현황 분석

□ (산업현황) 정밀가공장비 분야 생산 세계 6위, 수출 세계 7위로 높은 편이나, 하이엔드급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정밀기계 산업은 제조업(가스터빈, 풍력, 방산, 항공 등)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로 세계시장 급격히 성장중(연 15.3% 성장)
- 초정밀 가공장비 시장의 성장과 주요 정밀기계 강국의 AI기반 초정밀 가공기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 (단지현황) 1개 국가산업단지 (창원산단) 으로 구성

- 창원국가산단은 중공업육성정책('74년)에 따라 조성된 기계산업 집적지이며, 특히 정밀 가공장비 산업의 전국 최대 집적지
-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화천기계의 3개 앵커기업과 약 100여개 가공장비 관련 협력기업이 입주중



<정밀기계 특화단지 구성 및 기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 1) 1개의 산업단지만으로 특화단지 구성
 - 2) 단지 내에 다수의 수요기업 및 연구기관

□ (밸류체인 분석) 앵커기업이 밸류체인상 중간에 위치, 공작기계 관련 안정적 생태계 구축되어 있으나 핵심소재 및 AI 관련 기관은 부족

- 앵커기업(공작기계 3사)이 정밀기계 6대 핵심부품 등 소재부품을 납품받아 최종 전방산업에 장비를 제공하는 형태의 산업구조
- 다수의 부품가공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반해, 소재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Ti 등 대부분 핵심소재는 수입에 의존
- 또한, 단지내 기술지원이 가능한 다수의 공공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AI 연계를 주도할 혁신기관 및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

2. 맞춤형 지원방안

1 AI기반 초정밀 가공장비의 국산화 위한 실증기반 구축

- (주요내용) ①**전략산업용** 소재부품 업사이클링 실증센터 구축 지원(품목 : 전략금속소재), ②**AI빅데이터 기반 하이브리드 테스트베드**(품목 : AI접목 공작기계), ③**초정밀 가공장비 테스트베드**(품목 : 공작기계용 CNC) 추진

2 초정밀 가공장비 핵심기반 공동 R&D 지원 [협력모델화 추진]

- (주요내용) 공작기계 적용을 위한 고강도 초경량 신소재 적용 기술, 초정밀 측정 및 보정 기술, 모터 드라이브 신뢰성 향상 등 추진
 - * (예시) 공작기계 3사가 협력하여 알루미늄 주조 합금 기반 경량 공작기계 개발 (재료연), 서보모터 드라이브 테스트베드 구축(전기연) 등
- 최종 전방산업 기업(모빌리티 등)을 실증 등 형태로 참여시켜 개발 완료된 기술이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3 정밀기계 + AI 장비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

- (주요내용)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술, 인력,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AI 접목 교육 실시
 - * 기존 재직자교육사업("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내 **특화단지 연계 프로그램 마련**
- ① 소부장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생 참여형 실습교육 실시
- ② 산업체 생산라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AI 단기 집중교육 실시

< 인력양성 목표(안) >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직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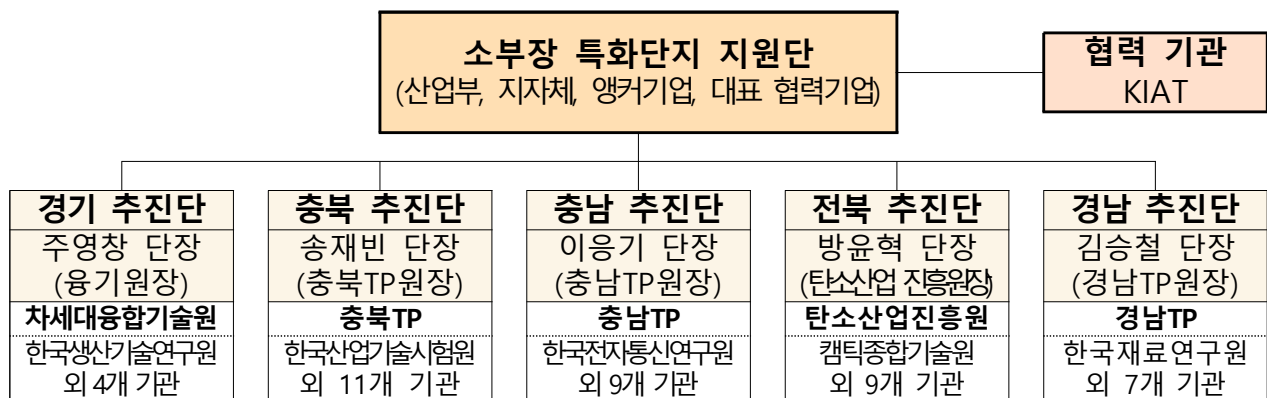
4 기계금속 소부장 기업 디지털 제조 혁신 지원

- (주요내용) 첨단장비, 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표준 모델*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가능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
 - * 기계, 항공, 조선 등 업종별 주요 공정분석을 통해 경남 지역 산업에 특화된 장비·로봇을 실증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장비를 보급
 - * 지능형 제조공정 표준모델 20개 이상 발굴

IV. 소부장 특화단지 공통 지원방안

①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특화단지별 운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 운영 조직 구성
 - * 추진단 구성(안) : 특화단지별로 해당 지자체 자율로 1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연구, TP, 대학 등 협력기관 포함
- (주요내용) ①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기획, 성과관리 ②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업 지원, ③앵커-협력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② 통합안전관리플랫폼 구축 (1개 단지 시범사업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소부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통합관리 시스템 및 컨트롤타워 구축, ②맞춤형 실시간 유해·위험물질 배출정보 제공, ③AI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 * 유해·위험물질 배출정보와 환경(기상 등) 정보 통합 → 유해·위험물질 확산 예측

③ 신뢰성 및 양산성능평가 우대

- (현황 및 필요성) 소부장 품목의 R&D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양산성능 평가 등을 집중 지원할 필요
- (주요내용) ①신뢰성기반활용지원 사업, ②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기업 선정시,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 가점 부여

사업명	사업내용	'21년 예산
신뢰성기반활용지원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 소재·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 활용지원	220억원
양산성능평가지원	핵심 소부장 품목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	400억원

4 학사 및 석·박사 인력양성 추진 [교육부 협조]

- (현황 및 필요성) 특화단지별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학사 이상 인력 확대를 통해 미래 기술개발 수요 대응 및 소부장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소부장 혁신” 분야 혁신 공유대학 컨소시엄 선정* 및 석·박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사 및 석·박사 인력 양성 확대

* '21년 8개 분야(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시스템/지능형) 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 포함), ⑥ 실감미디어(콘텐츠)(AR/VR 포함),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 신산업(신재생 에너지) **컨소시엄** 선정('21.5월) → '22년부터 단계적 확대

** 소부장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 ('21) 7개, 137억원 → ('22) 8개, 191억원

5 투자촉진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기업의 지방 투자*시 입지 및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중이나, 특화단지의 투자 유치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비용, 설비비용의 각 9~50%, 11~34% 지원

- (주요내용) 입지·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6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우선 지원 [특허청 협조]

- (현황 및 필요성) 소부장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에 종합 대비하기 위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20.11월)
- (주요내용)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①분쟁대응 컨설팅, ②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등 시행

7 규제특례 제공

- (현황 및 필요성) 공장 신증설 및 가동 관련 규제, 다양한 유사중복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에 다양한 애로사항 발생
- (주요내용) ①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인허가 조속처리 등) 적용, ②입주기업 대상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을 통한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Fast Track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338대 품목으로 확대 적용

** 수급대응지원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부처·지자체 유사중복 규제 검토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개선